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2006 프로야구 마감

❷ KIA, 꼴찌에서 4강까지

마운드 '젊은 피' 수혈 성공적

한기주 역투…8개 구단 중 방어율 1위 주역

'명가재건의 희망을 쐈다'

서정환 KIA 감독은 올 시즌 초 "4강 진입이 목표" 라고 말했다.

일부 팬들은 한국시리즈를 9차례나 제패한 '야구 명가'인 KIA의 목표치곤 너무 초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야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다. KIA를 4강 진입도 어려운 '약체'로 분류한 것.

이유는 지난 시즌 최하위 팀인 KIA가 별다른 전력 보강도 없이 한 시즌만에 재기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판단 때문.

데이터상으로도 국내 프로야구 25년 역사상 '꼴찌'가 곧바로 4강에 진입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그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KIA는 올 시즌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등 각종 악재를 딛고 포스트시즌에 진출, 그 약속을 지켜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 KIA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한기주

'미들맨' 윤석민 팀 활력소 역할 '톡톡'

▲가시밭길 딛고 포스트시즌 진출

KIA는 올 시즌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걸었다.

개막전부터 3경기 연속 무승(1무2패)의 수렁에 빠졌고, 6월 한때 6연패의 늪에서 허우적 거렸다.

마운드에선 1,2,3 선발 중 강철민은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고, 김진우도 어깨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비우기 일쑤였다. 유일하게 잘해주던 '특급 에이스' 그레이싱어마저 시즌 막판엔 강행군으로 지쳐 몸져 누웠다.

타선은 더욱 심각했다.

'용병' 서브넥과 스캇은 독약이나 다름없었고, 이종범과 홍세완, 심재학 등도 시즌내내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야구 명가의 저력은 힘들때 그 빛을 냈다. 선배들의 공백을 젊은 후배들이 대신한 것.

후반기들어 한기주는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한 뒤 '미들맨' 윤석민과 찰떡 궁합을 과시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급반전 시켰다.

프로 3~5년차인 신용운과 이동현, 이상화 등도 마운드에 힘을 보탰다.

타선에선 이용규와 김원섭, 이현곤 등이 발톱을 세웠다.

결국 KIA는 9월들어 연승행진을 거듭하며 극적으로 회생했고, 막판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두산을 제치고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성과 위주 선수 기용…이재주 등 발탁 주효

▲과감한 선수 기용 빛났다

올 시즌 KIA의 가장 값진 성과로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그늘속에 있던 일부 선수들의 과감한 발탁이 꼽힌다.

마운드에서의 한기주, 윤석민 등 젊은 피 수혈로 8개 구단 가운데 팀 방어율 1위의 성적을 거뒀고, 타선에선 이재주, 김원섭, 이현곤 등 무명 선수들의 과감한 발탁이 큰 힘이 됐다.

대신 '전국구 스타' 이종범 등 성적이 부진한 노장들은 가차없이 2군으로 내려보냈다.

▲망친 용병 농사는 '옥의 티'

용병농사를 망친 게 두고 두고 한이 됐다.

올 시즌 초 영입한 서브넥(타율 0.224)은 물방망이만 휘둘렀다.

지난 6월 한국 야구 적응에 실패한 서브넥 대신 급조한 스캇(타율 0.163)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서브넥과 스캇 영입에 들어간 돈만 7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브넥 등 용병 역할 기대 이하 아쉬움

KIA 스카웃팀의 무능력한 용병 영입이 도마위에 오른 것은 당연지사.

유난히 약했던 방망이로 매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던 KIA로선 용병타자의 실패가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서 감독도 "올 시즌 용병 실패가 가장 큰 전력 손실 중 하나" 라면서 "타선에서 보탬을 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며 뼈아픈 한마디를 내뱉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가볍게 첫 승

코스타리카 3-0 제압
세계여자배구 선수권

한국 여자배구가 2006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스타리카를 가볍게 꺾고 첫 승을 올렸다.

김명수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요요기체육관에서 열린 예선리그 A조 코스타리카와 개막경기에서 레프트 배유나(16점·한일전산여고)와 한송이(13점·도로공사)의 활약을 앞세워 3-0(25-16 25-15 25-17), 완승을 거뒀다.

6개월여만에 코트에 복귀한 '거포' 김연경(18·흥국생명)은 2, 3세트에 교체 투입돼 블로킹 1개를 포함해 9점을 뽑아 건재를 과시했다.

1세트에 황연주(11점·흥국생명)의 스파이크를 앞세워 6-2로 기선을 잡은 한국은 배유나와 한송이의 스파이크가 불을 뿜어 25-16으로 첫 판을 가볍게 따냈다.

2세트 들어서도 한송이의 타점 높은 공격으로 3점차 이상 앞서가다 코스타리카의 주포 윌리스 베라니아의 공격에 뚫리고 공격범실까지 겹쳐 14-12까지 쫓겼다.

그러나 배유나의 스파이크로 코스타리카의 추격을 뿌리친 뒤 한송이가 힘을 보태 25-15로 2세트도 승리했다.

한국은 3세트 초반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며 고전하다 5-7에서 배유나의 공격과 황연주의 잇단 서브에이스로 9-7로 역전했고 9-9 동점에서 김연경이 블로킹과 스파이크로 5점을 몰아치는 원맨쇼를 펼치며 내리 8득점해 승부를 갈랐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요요기체육관에서 열린 예선리그 A조 한국과 코스타리카와 개막경기에서 한국의 한송이가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KPGA 에머슨퍼시픽그룹 오픈
내일 개막…신인왕 경쟁 치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에머슨퍼시픽그룹오픈이 11월2일부터 나흘간 경남 남해군의 힐튼 남해골프&스파리조트 골프장(파72·6천590m)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상금왕 및 신인왕 경쟁 3파전을 지켜볼 만 하다.

아직 시즌 상금액 3억원 고지를 점령하지 못한 신용진(42·LG패션)과 강지만(30·동아회원권),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의 상금왕 경쟁은 이번 대회에서도 계속된다.

지난 대회까지 상금 랭킹 1위에 올라 내달 16일부터 개최되는 일본프로골프 던롭피닉스토너먼트 출전권을 획득한 신용진은 2003년 이후 3년만에 상금왕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야심이다.

프로 데뷔 3년차까지 주어지는 신인왕 경쟁자들은 김형성(26·르꼬끄골프)과 최진호(22·보그너), 이승호(20·투어스테이지)가 꼽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CMB 광주방송배 골프 양진호·박은재씨 우승

양진호, 박은재씨가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각각 남·여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양진호씨는 지난달 31일 4 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열린 '2006 CMB광주방송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3언더파 69타(전반 37, 후반 32)로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박은재씨가 2오버파 74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준우승은 남자부 이태연(71타), 여자부 이정아씨(75타)가 각각 차지했으며 윤재칠(72타)·김경화씨(76타)가 각각 남·여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순수 아마추어 남녀 골퍼와 CMB광주방송 시청자 초청선수 등 총 253명이 참가해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를 펼쳐 수준높은 기량을 겨뤘다.

2006 CMB광주방송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남녀부에서 각각 우승한 양진호(오른쪽), 박은재(가운데)씨가 이근호 CMB광주방송사장(왼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이번 대회 매너상은 김정원씨와 박정희씨가 수상했으며 전반과 후반 똑같은 스코어를 기록한 잉꼬상은 정필성씨(전·후반 36타)와 문순희씨(전·후반 40타)가 받았다.

또한 위구양씨는 15개의 파를 기록해 '다파상'을 수상했으며 18번 홀(파4· 380m)에서 겨룬 롱게스트 대결에서는 탁동진씨와 조난심씨가 각각 271m와 210m의 비거리를 기록, 남·여 롱게스트로 선정됐다.

이밖에 유종진씨와 윤영민씨는 센스있는 패션감각을 선보여 남·여부 베스트드레서상에 받았으며 박화서씨와 이미삼씨는 15번홀(파3· 남 132m, 여 108m)에서 티샷한 공을 각각 홀에 35㎝, 60㎝ 가까이 붙여 남·여 니어리스트상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 PAVV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돌입…FA 시장 활기 띨 듯

KIA 김종국 등 자유계약 신청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전쟁이 본격적인 스토브리그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규약에 따라 한국시리즈를 마친 뒤 5일 후 FA자격을 갖춘 선수를 공시한다. 11월3일에 공시된 선수들은 3일내 FA 신청서를 작성, 전 소속구단에 이를 알리면 된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KBO 공시 후 10일 동안 전 소속구단과 협상을 벌이게 되며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후 20일 간 다른 구단과 협상에 나서고 이마저도 무위에 그친다면 내년 1월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올해에는 이병규(LG), 박명환(두산), 김원형, 박경완(이상 SK), 전병호, 진갑용(이상 삼성), 노장진(롯데), 김수경(현대) 등 대어급 선수들이 즐비해 FA 시장이 활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KIA에선 내야수 김종국이 FA자격을 얻었다.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가 입질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이병규는 FA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형과 박경완 역시 FA 선언 여부를 놓고 김성근 감독 및 구단과 사전 조율 중이며 노장진은 이미 FA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병규,박명환, 김수경 등 이른바 '빅 3'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LG는 올해 이병규에게 5억 원을 안겨주며 '서울 연봉킹'의 자존심을 세워줬다. '우승 청부사' 김재박 감독을 영입,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LG로서는 프랜차이즈 스타 이병규를 붙잡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

수면 아래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비롯, 여타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박명환은 느긋하다. 박명환의 에이전트인 박유현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일본 뿐 아니라 국내 구단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